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이젠 경제 민주화 성지로”

6·3 지방선거 D-84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한 뒤 2개월 만에 특별법 제정까지 이끌어낸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공식 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펼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전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지사는 이날 무안 김대중 광장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순천대 열린광장에서 잇따라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가 대통합을 계기로 소외의 역사를 끊어내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뒤엎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경제 민주화’의 성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가능했던 광주·전남 통합은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쾌거”라며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100년 또한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180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는 사람, 특별시가 가야 할 길을 잘 아는 김영록이 전남광주특별시장에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방의 광역행정을 두루 섭렵한 경험과 추진력, 비전은 기본이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구상과 전략도 밝혔다.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 권역으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공식 선언
광주·전남 동부·서부권서 기자회견
“수도권 일극 뒤엎는 미래성장 핵심”
통합 첫 제안·실행 이어 완성 자신
“대통령이 원하는 광역행정 전문가”
“마지막 봉사” 지지세 확산 본격화

로 나눠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Y4-노믹스’ 비전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권은 자율주행·AI실증·반도체 패키징, 동부권은 로보·우주항공·수소·고부가가치 반도체, 서부권은 에너지·AI데이터센터·항공정비·반도체 팹, 남부권은 에너지·첨단 농수산업·헬스케어·관광 등으로 각 권역별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농·수협 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사회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각 권역별 차별화된 공약도 내놓았다.



“통합특별시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대 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무안과 광주, 순천 등 3곳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세를 호소했다. /조영권 기자

광주권은 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 중심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비엔날레 전시관 연계 K-아트 클러스터 구축, 광주공항 이전 부지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제2의 에버랜드 유치, 세계 민주주의 전당·민주주의 아카데미 설립 등을 약속했다.

서부권은 동북아 에너지·해양 허브 구축, RE100 산업기지,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 완성,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무안국제공항 연계 글로벌 항공 특화 MRO산업 육성, 조선산업 고도화 등이다.

동부권의 경우 이차전지·반도체·로봇·우주항공 중심 스마트 혁신제조 수도 조성, 미래 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 K-배터리 산업핵심 원료 공급 거점 구축, 철강·화학산업 고도화, 남해안개발청 신설, 동부지역본부 인력·조직 보강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장이 마지막 공식 봉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되면 전남지사 재선을 더하기 때문에 3선에 해당해 마지막 봉사가 된다”며 “(특별법 설계 당시) 저에게 의견을 물었

는데 확실하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3선 관련 규정을 넣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많은 번민 끝에 통합을 제안·실현하고 마침내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남광주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 서울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장, 길을 잘 아는 혁신행정가 김영록이시·도민 헌신·한분과 함께 위대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 기자

민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내달 14일 선출

최고위 경선 세부일정·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세부 일정과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후보자 등록 10·11일 ▲예비경선 19·20일 ▲본경선 4월3·5일 ▲결선투표 4월12·14일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예비경선에서 8명의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 5명 압축
본경선에선 ‘당원 50% + 시민 50%’
과반 득표자 없으면 2명 결선투표
안심번호 9만명...표본 3천명 조사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현재의 지지도를 감안할 때 본경선 진출자 5명 중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를 앞두고 후보간 합종연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관련 포인트로 떠올랐다. 경선 방식은 단계별로 당심과 민심을 모두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원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후보 8명 가운데 상위 5명을 선출한다.

본경선과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대상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정한다.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이를 통한 총 5회 발신되는 강제 ARS 방식(아웃바운드)으로 실시되

며,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표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 규모를 고려해 유권자 50만명 이상인 서울·경기 등과 동일한 9만명 규모의 안심번호를 확보하고, 3천명을 표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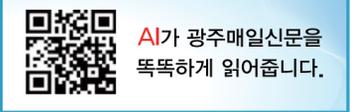
예비경선 전 후보 검증은 위한 합동 연설회와 공개 토론회도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전인 오는 14일 중앙당사당 원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연다. 이어 17·18일에는 후보를 4명씩 A조와 B조로 나눠 광주MBC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정책과 비전을 검증할 계획이다. A조 토론회는 17일 오후 5시10분~7시5분, B조는 18일 오후 5시10분~7시5분으로 예정돼 있다.

본경선에서는 기존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신 투표권이 없는 ‘정책배심원제 권역별 심층토론회’를 실

시하기로 했다. 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정책배심원은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등 3개 권역(순서 무작위 추첨)에서 패널 토론과 즉문즉답 형식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경선 기탁금은 단계별로 납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8명) 1인 당 200만원, 본경선 후보(5명) 1인 당 3천100만원, 결선 진출(2명) 7천800만원을 부담한다. 전체 경선 비용은 약 1억1천100만원 규모로 투표 안내, ARS-온라인 투표, 감독관 출장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김진수 기자



제13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3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00명 내외

모집인원 2026년 3월 24일(화) ~ 2026년 12월 종강(연 16회)

교육기간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6시부터 식사)

강의시간 L7 층장 바이 롯데호텔(구, 라마다플라자 층상호텔)

강의장소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전형방법 - 접수마감일: 2026년 3월 20일(금)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4)

-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수강생 모집요강

■ 주요강사진(2026년)

 박지훈 변호사	 조영구 방송인	 김동규 성악가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정은호 미술사	 김봉중 전남대학교 사회과 명예교수	 김영미 노스페이스 예술리틀	 헤인 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	 김대서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지연 배우
--	---	---	--	---	--	--	---	---	--